

부산시, 대학 4곳과 '글로벌대학 30' 최종심사 전략 수립

동아·동서·동명·신라대 총장과 비전·전략과제 점검·논의 예정 최종선정 위해 행·재정 지원 박차

글로벌대학 최종 심사를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 지역 4개 대학이 비전과 전략과제를 점검한다.

'글로벌대학30'은 대학 안팎과 국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대학으로,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의 공모사업이다.

부산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 지역 대학 4곳과 '글로벌대학 비전 및 혁신전략보고회'를 열고, 글로벌대학 본 지정에 위한 혁신 비전 및 전략 수립·발표에 나선다.



부산시청.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는 동아·동서대와 동명·신라대 4개 대학 총장과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최종 심사를 앞

두고 비전과 전략과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대와 동서대 연합은 통합산단을 기반으로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을 목표로 ▲에너지테크(전력반도체, 수소)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부산 헤리티지 등 4개 특화 분야를 지정하고, 지산학 연계를 통해 산업 고도화와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명대와 신라대 연합은 부산 미래 전략 사업을 견인하는 지산학캡퍼스 '디지털 혁신타운' 기반의 부산형 글로벌 연합대학을 제시하고, 각 대학 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대해 특성화하고 과감한 학과 조정에 나선다. 동명대는 미래모빌리티(전기차, 디지털플랫폼), 신라대는 미래라이프(실버케어, 블루푸드)로 특성화된 통

합 스쿨을 운영한다.

시는 예비 지정 대학들이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글로벌대학이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외국 대학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제 발전 밑바탕에는 세계적인 대학들의 끊임없는 혁신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있다"며 "부산이 만들어낼 지산학 협력 기반으로 지역의 대학들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 지역에선 제1호 글로벌대학으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선정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한수원

중소 대출이자 4% 지원

경북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4%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수원의 상생협력기금 1000억원을 활용해 기업당 10억을 융자하고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를 지급한다.

전체 융자 규모는 1080억 원이며, 경북도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주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10일 기업투자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주(경북)=김삼복 기자 ksb8100@

여수시

남만버스킹 퍼레이드 페스티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27일 여수해양공원 일원에서 '2024 여수밤바다 남만버스킹 퍼레이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버스커가 직접 참여한 대규모 퍼레이드로 여수의 밤을 더욱 밝힐 계획이다.

라퍼커션팀, 포니케임, 옐카라도팀 등 총 8팀이 출연,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남만버스킹 1번존(중앙선어시장 맞은편)에서 시작하여 해양공원 주무대로 이어진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진주시

'나이트 자술랭 투어' 참가자 모집

진주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식 기행 야간 자전거 투어인 '리버나이트 진주 나이트 자술랭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이트 자술랭 투어는 진주의 시원한 남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도로를 달리며 진주성,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등 대표 관광지를 관람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진주의 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야간 자전거 투어이다.

야간관광 특화도시이자 명품 자전거도시 진주에서 펼쳐지는 이번 투어에는 자전거 대여와 단체 라이딩, 관광지 관람, 진주 음식 도시락, 숙박, 버스킹 공연 등 알찬 콘텐츠가 제공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경남도

유튜브 '섬핑스페셜' 인기몰이

경남도 공식 유튜브 경남TV가 경남의 섬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시리즈 '섬핑스페셜'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섬핑스페셜 1편 칠천도 편은 지난 6월 공개 이후 조회수 151만 회로, 경남TV 개설 이래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섬핑스페셜' 시리즈는 지난해 경남TV 최고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한 'Wanna play 경남?' 시리즈에 이어 올해 야심 차게 준비한 시리즈다.

/울산=손병호 기자

/경남=이도식 기자

신안군 '버스공영제', 年 160억 경제효과

버스공영제 경제성 분석 검토용역 총 2333억 효과... 정성편익 미반영 민영제·준공영제비 효율적 운영

전남 신안군 버스공영제 사업이 연간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으며, 민영제와 준공영제에 비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버스공영제를 시행한 지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이용객 수 증가, 군민 이동량 증가,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지난 6월 30일 '버스공영제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용역'을 마쳤다.

국내 교통시설사업 성과지표 사례와 국외 교통시설사업 성과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9개 항목의 정량 편익성과 지표 분석한 결과, 연간 16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으며, 버스공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3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



신안군 주민들이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1004번 노선 공영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신안군

타났다. 이는 '군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및 '언론홍보 효과' 등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성편익은 효과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민영제와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신안군은 버스 대당 7200만 원이며, 민영제를 하는 목포시의 경우 대당 약 8600만 원, 준공영제를 하는 광주광역시 대당 1억 3700만 원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창원시, 내달 공원드론 배송서비스 시행

공원 3곳서 '나르고' 앱으로 주문

창원특례시는 8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공원 드론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

'드론으로 높고 넓게, 수요자 중심의 드론 일상화 도시' 구축을 목표로 창원특례시는 대원레포츠공원, 북면수변생태공원, 만달근린공원 인근에 드론 배달거점 3개소, 배달점 10개소를 설치해 드론 비행경로를 구축하고 드론배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드론배송 서비스는 음료수, 과자류 등 편의 물품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주문할 수 있다. 주문은 가칭 '나르고' 앱을 통해 이뤄지며 사용자는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배송지를 입력하면 된다. 드론은 지정된 배달거점에서 이륙해, 설정된 경로를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점으로 날아가 상품을 전달한다.

이번 드론배송 서비스는 시민들이 첨단 드론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드론배송을 통해 상품을 받아보는 경험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창원특례시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은 교통 혼잡 완화,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도전해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드론을 이용한 도서지역 스마트 배송, 해양오염 및 재난안전 모니터링을 실증했으며 올해에는 공원 드론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지능형공장 보급 확산사업 '최우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수요조사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

울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능형공장 보급 확산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지능형제조혁신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능형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로 통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 내 15개 기업을 선정하고 국비 4억 9000만원, 시비 8억원, 총 12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고,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과 제조현장 지능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공장 보급 확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지능형공장 구축 완료한 기업 중 117개 기업 대상으로 구축 성과를 조사한 결과, 170%의 품질개선, 148%의 원가감소와 108%의 생산성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기반으로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영개선에도 성과가 확인됐다.

/울산=손병호 기자

경북교육청, '대학 진학 경북박람회' 성료

1만5000여명 참여

경북교육청이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구미코(GUMICO)에서 운영한 '2025학년도 대학 진학 경북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행사에 1만5000여 명의 교육 가족들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박람회는 전국의 73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하는 '대학별 맞춤형 진학 상담' 부스, '선생님과 함께하는 1:1 대입 상담', '의료계열 특강 등 7개의 맞춤형 수시지원 전략 특강', 대학

입시 선배들의 실질적인 대입 준비 경험을 공유하는 '학과별 멘토-멘티관' 등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북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경주와 구미지역에 1회씩 운영했다.

올해는 고 1, 2 학생들을 위해 전용 관도 운영해 대입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 특히 경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120여 명이 대학별 상담 부스에 참가했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도 진행했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